

<고향(이기영)>

[15~17]

15.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 ⑤ ‘그(백룡이 모친)도 술이 취해서 열근한 바람에 달려들더니만 치맛자락을 걷어 들고 쇠득이와 마주 서서 엉덩춤을 덩실덩실 춘다. 그리고 지화자를 불렀다. 구경꾼들은 그들이 똥을 끼얹고 싸우던 엇그제 일이 생각나서 속으로 웃었다.’에서 볼 수 있듯이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는 논매기를 마친 후 백룡이 집 마당에서 춤을 추며 서로 간에 쌓였던 감정의 앙금을 해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기의 인텔리 근성을 자책하기 마지않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회준은 김 선달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인텔리 근성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김 선달’이 ‘회준’의 인텔리 근성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조 침지’는 ‘회준’에게 ‘왜 월급생활을 얹느냐며’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준이 목은 사상에 사로잡혀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됐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준’은 생산적 노동이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회준’은 ‘육체적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보니 그전에 높고막던 허물이 누워쳐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회준’은 논매는 일을 직접 해 봄으로써 육체적 노동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 의도] 작품에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한다.

- ④ ㉔은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사상’을 의미하는 ‘햇일새’와 ‘밝은 세상 또는 밝은 사상 (목은 사상)’을 의미하는 ‘목은 일새’라는 대립적 소재를 활용하여 햇일새가 싹터나 오는데도 목은 일새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 여전히 목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현실을 간파하고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먹은 게 소화가 잘 된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청년회 사람들을 반어적으로 비꼬는 표현이다. ② ㉔은 특정 소재인 돼지들이 먹는 죽인 ‘지게미’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도 못 먹어서 한숨을 짓는 절대 빈곤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한 말이다. ③ ㉔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자연에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⑤ ㉔은 ‘불별이 내리 쏘인다’는 시각적 이미지,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촉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뜨거운 햇볕 아래서 힘들게 농사일(논매기)을 하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17.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 ③ 회준이 낮에 힘들게 논매기를 끝낸 후 밤새도록 허리를 뽕뽕 앓은 것은 아직 노동(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지식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이것이 자신의 구상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회준이 호미를 들고 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당시 농촌 계몽 소설들의 주인공이 무지한 농민들을 계몽하고 이끄는 역할만을 하는 것과는 달리, 농민 속에 들어가 함께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김선달의 ‘야학이니, 그건 잘하는 일이야. 모르는 농을 잘 가르쳐야지’라는 말에서 회준이 추진하고 있는 야학은 무지한 농민들을 깨우치는 계몽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지한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계몽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알려 주는 것이다. ④ 회준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철철 흘려가며 농민들과 함께 힘들게 논매기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직접 육체적 노동의 고통을 겪으며 그전에 높고막던 허물을 누워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회준의 현실 인식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김선달은 야학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아는 농만 자꾸 가르칠 것 있나, 모르는 농을 잘 가르쳐야지’라고 말하면서 회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김선달의 말에 회준은 ‘자신의 가진 신념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농민들의 지적에서 현실을 깨닫고 있는 회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김 강사와 T 교수(유진오) - 수능특강 154p 관련>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 교수는 의미 모를 너털웃음을 크게 웃고 나서,
“진상, 진상 일은 내 다 잘 알고 있지요. 벌써 작년에 H 과장께 당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무어 내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교장에게 추천한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지요. 허…… 어…….”

김만필은 T 교수의 후림대와 너털웃음에 몹시 야비한 느낌을 받았으나 하여간 고개를 숙여 그에게 감사의 표정을 아니할 수 없었다. T 교수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추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H 과장의 명령을 교장에게 전하는 일만은 하였음직한 일이었다.

T 교수는 차를 환속에 마시고 이번에는 알짜 위스키를 청하며,
“당신은 나를 모르셨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왕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작년부터 나는 조선말을 공부하느라고요.”

김만필은 T 교수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T 교수가 배우는 조선말과 김만필과의 사이에 무슨 연락이 있단 말인가? T 교수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김만필에게 친밀의 감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 같았으나 김만필은 무슨 말이 또 나올는지 몰라 슬그머니 겁이 나는 것이었다.

“……조선말을 배우느라고 신문에 나는 소설과 논문을 학생더러 통역해 달래며 읽었는데 우연히 당신이 쓰신 「독일 신흥작가 군상(群像)」이란 논문을 읽었어요. 정말 경복하였습니다. 독일 문학에 대해 당신만큼 연구와 이해가 깊은 이는 온 일본 안에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H 과장 집에서 당신 이야기가 났을 때 그런 분을 우리 학교에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속으로 대단 바랐던 것입니다. 허허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로도 많이 써주십시오.”

김만필은 상처나 다친 듯이 속이 뜨끔하였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T 교수의 내심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작년 겨울에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던 「독일 신흥작가 군상」이란 논문은 몇 푼 안 되는 원고료를 목표로 총총히 쓴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그 논문의 내용은 독일 좌익작가의 활동을 소개한 것이므로 지금 그런 종류의 일은 그의 S 전문학교에서의 지위를 위해서는 절대로 비밀에 붙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을 T 교수가 일부러 쳐들어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라느니보다 도리어 위협으로 들렸다. 도대체 T 교수는 무슨 까닭으로 김만필에게 친절을 억지로 보이려는 것일까, 모를 일이었다.

(중략)

하루는 T 교수가 또 예의 인품 좋은 웃음을 띄우고 김 강사를 찾아와 집으로 나가는 길에 잠깐만 어디로 같이 가자고 청하였다. 김 강사는 지금까지 T 교수와 접촉해서 유쾌한 기억을 가진 일은 한 번도 없었으나 어쨌든 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언젠가 같이 갔던 세르팡이라는 찻집으로 갔다. 그러나 T 교수의 이야기는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불쾌한 것이었다.

“어젯저녁에 H 과장을 만났더니 진상을 좀 만나자고 그랬다. 우리 교장의 성미는 내가 잘 아니까 요전에도 무슨 과자 상자라고 갖다 주라니까 아마 안 그랬지요. 허…… 진상은 실례의 말이지만 아직 세상을 모른단 말요. 무슨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도무지 공기가 좀 재미 없는 듯하던걸요. 아마 H 과장도 이 근래는 한번도 안 찾아갔지요. 그것도 다 진상의 심부름 짓이란 말씀이요. 진상으로 말하면 H 과장의 추천으로 들어왔었다. 잘만 하면 차차 시간도 더 얻을 수 있구 할 텐데 왜 헤다(실수)를 한단 말씀요.”

T 교수는 충심으로 김 강사를 동정하는 눈치를 보였다.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그럴듯한 말이나 김만필에게는 어찌 T의 하는 말이 뻘치고 등 만지는 수작같이 생각되었다.

“네, 잘 알았습니다. H 과장은 곧 찾아가지요.”

그는 침이나 뱀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으로 곧 H 과장을 찾아갔다.** 불안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H 과장 집 현관에는 마침 손이 있는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에는 H 과장 혼자서 앉아 있었다. 하녀가 와서 테이블 위의 찻종을 치우고 있는 것이 누가 왔다가 금방 간 모양이다. H 과장은 웬일인지 노기가 등등해 앉아 있었다. 일상의 그 온후하던 안색은 간곳없고 독살스런 눈으로 김만필을 노려보았다.

“무얼 하러 왔나?”

그는 김만필이 방을 들어서자마자 대고 쏘았다. 김만필은 너무나 의외에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T 말이 과장께서 좀 만나자고 하신다기에…….”

“만나자고 해야만 만나겠나. 자네한테 긴할 때는 자꾸 찾아오고 자네한테 일없이 되니까 발을 뚝 끊는 그런 실례의 경우가 어디에 있나! 그러기에 조선 사람은 배은망덕을 한다고 들 하는 게야.”

“잘못되었습니다.”

김만필은 앉지도 못하고 과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H 과장은 노한 소리를 한층 높여,

“자네는 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나는 자네만 믿었지, 남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남의 얼굴에 똥칠을 해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제가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속이다니요? 자네는 나한테 와서 취직 청을 할 때 무어라고 그랬어. 사상 방면에는 절대로 관계없다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남을 감쪽같이 속이는 데가 어디 있나.”

울 것이 온 것이다, 라고 김만필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면 **어디까지 한번 버티어 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상이니 무어니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과장님을 속이다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 그래도 자네는 나를 속이려나?”

H 과장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찻종을 덜그럭 하고 놓고 의자를 뒤로 떼밀며 몸을 벌떡 젖혔다. 그때 이웃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언제나 일반적으로 봄 물결이 넘실넘실하듯, 온 얼굴에 병글병글 미소를 띤 T 교수가 응접실로 들어왔다.

-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교체하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병치하여 갈등 해결의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춰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만필'은 'T 교수'의 권유에 따라 'H 과장'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 ② 'H 과장'은 '김만필'이 S 전문학교의 시간 강사가 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 ③ 'T 교수'는 'H 과장'과 '교장'에게 S 전문학교의 시간 강사로 '김만필'을 추천하였다.
- ④ '김만필'은 자신의 논문 때문에 S 전문학교의 시간 강사의 지위를 잃을 것을 걱정하였다.
- ⑤ 'H 과장'은 '김만필'의 취직 청을 듣기 전에 'T 교수'를 통해 '김만필'의 과거 행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상대방이 한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 ③ [A]는 상대방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협박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질책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의 글이 뛰어나다고 직접 말하고 있고 [B]는 상대방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돌려 말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B]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세상 물정을 제대로 모르는 김만필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S 전문학교의 시간 강사로 취직하면서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김만필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순응하고 싶은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교활하고 비겁한 T 교수에 의해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현실 순응에 실패하고 만다. 작가는 이러한 김만필의 모습을 통해 1930년대 참담했던 지식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만필'이 '그날 밤으로 곧 H 과장을 찾아' 간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순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H 과장'이 '사상 면에 절대로 관계없다고 그랬지'라며 김만필을 추궁하는 것은 '김만필'이 현실 순응에 실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김만필'이 '교장'에게 '과자 상자라고 갖다 주라'는 'T 교수'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T 교수'가 '온 얼굴에 벙글벙글 미소를 띠며 'H 과장'의 '응접실로 들어'오는 모습은 교활하고 비겁한 T 교수에 의해 '김만필'의 과거 행적이 'H 과장'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김만필'이 'H 과장'의 추궁에 '올 것이 온 것'이라 여기면서도 '버티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현실에 순응하고 싶은 마음과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사이에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